

최근 최소주의의 보편문법과 국어에 대한 시사점*

이정식

(원광대)

Lee, Jeong-Shik. (2016). Universal Grammar in the Recent Minimalism and Its Suggestion for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2), 127-147. Due to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Universal Grammar (UG) in the recent minimalist framework (Chomsky 2005), previous Principles and Parameters were excluded from UG. This paper thus addresses the issue of how the effects of the head-parameter in particular can be derived, the one that was responsible for word order difference, i.e., head-initial or head-final, in languages like English and those like Korean, respectively. For this, I argue for the universal Spec-head-complement hypothesis (Kayne 1994). It is claimed that Korean starts with the underlying head-initial structure and ends up displaying the typical head-final properties. This claim is corroborated by the technical and theoretical discussion made available from the perspective of current generative grammar.

주제어(Key Words):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핵매개변인(head-parameter), 핵어선(head-initial), 핵어말(head-final), Spec-head-complement(지정어-핵-보어)

1. 보편문법의 변모와 매개변인의 위치

Chomsky(1981)에서 시작된 지배와 결속이론(GB)은 이후 10 여 년 동안 번창하였으며, 그 핵심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이라는 개념에 있다. 이것은 원리와 매개변인(Principles and Parameter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결속이론(Binding theory), 한계이론(Bounding theory), 계층구조이론(X' -theory), 격이론(Case theory), 통제이론(Control theory), 의미역이론(Theta-theory), 핵매개변인(Head parameter) 등이다.

* 본 줄고는 2015. 10. 17.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언어학회에서 발표한 특강 내용을 가다듬은 것이다. 여기에 유익한 조언을 주신 세 분의 심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어떤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저자의 몫이다.

그래서 특히 영어의 SVO 순서와 한국어의 SOV 어순과 같은 언어 간의 어순의 차이에 대해서는 보편문법 내의 핵매개변인의 값이 미정된 상태에서 연산체계 내에서 이 핵매개변인이 영어의 환경에서는 핵어선, 즉, VO의 순서로, 한국어의 환경에서는 핵어말, 즉, OV의 순서로 그 값이 정해진다.

그러나 최근 진화의 관점에서 발전, 제시된 최소주의의 새로운 노선 상에서 (Chomsky 2005), 종래의 보편문법은 이제 그 내용물이 극소화되고 미결정된 것으로 재고되었다. 인간의 진화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진행된 것에 비해 그 언어는 고작 5-6 만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뇌에 어떤 돌연한 작은 변이가 발생하여 뇌가 재조직됨으로써 급격하게 출현한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볼 때 자연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병합(Merge)이 혁신적인 진화를 일으킨 운용으로 간주되었으며 외부병합(External Merge)과 내부병합(Internal Merge)을 통해 구구조가 생성, 재배열, 되풀이(recursion) 될 수 있게 되어 무한하고 창조적인 언어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보편문법은 병합(Merge)과 이동(Move)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자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제 보편문법은, 모든 언어가 동일하다(uniform)는 가정 하에, 유전적 요인, 소위 제 1 요인으로 압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개념의 보편문법에서 추출된 원리들은 소위 제 3 요인, 즉, 언어능력 이외의 다른 일반 원리에 귀착되었으며, 매개변인들은 이제 새롭게 변모된 동일성을 지닌 보편문법이나 변이가 인정되지 않는 원리들 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Chomsky 2006, Boeckx 2008).¹⁾

이러한 이론 발전의 흐름과 관련하여, 국어의 어순에 관하여 이제 핵매개변인이 정말 보편문법의 성질인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배결속이론 체제하에서 핵매개변인이 통사부 연산체계 내에서 확정되어 국어가 핵어말 특성을 보인다는 인식이 과연 확실한 것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언어습득과 관련하여 매개변인 이론이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누적되어 왔는데, 결국 매개변인이 보편문법 내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Hornstein 2009: 164-167, 여기에 소개된 문헌도 참고). 이제 위에 언급한 면모로 발전된 최소주의 문법의 틀에서 핵매개변인이 보편문법 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매개변인의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내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와 더불어 밀접하게 관련된 선행화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국어의 기저어순이 이제까지 오랫동안 가정되어 왔던 핵어말(head-final) 순서, 또는, 지정어-보어-핵 순서가 아니라 Kayne(1994)의 주장대로 범어적인 핵어선(head-first), 또는, 지정어-핵-보어 순서라는 것을 옹호할 것이다. 논의에서

1) 따라서 언어 간의 매개변인적 변이는 어휘부에 제한되었다 (Chomsky 2001: 2, Borer 1984: 3). 여기서 제 1 요인은 유전적 요인으로 보편문법을, 제 2 요인은 언어 자극과 같은 경험적 요인을, 그리고 제 3 요인은 일반적 생물학적, 인지적 요인으로 원리를 말한다 (참고, Chomsky 2005).

전자를 SOV 가설, 후자를 SVO 가설이라 칭한다.²⁾ 지구상의 자연언어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SOV와 SVO 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것이 기저어순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 참고로, Joseph Greenberg(1966: Appendix II)에 의하면, VSO, SVO, SOV의 어순 중 VO가 OV보다 다소 많으며, 전치사(Preposition)가 후치사(Postposition)보다 다소 적다 (총 142 개 언어 중 VSO = 26, SVO = 52, SOV = 64; Preposition = 63, Postposition = 79). 다시 말하여, 두 어순의 분포 비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어선 구조가 기저구조를 이룬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언어학적 논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어의 다양한 어순변이는 SVO 가설을 지지해 주는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아래의 예들은 목적어 '영회를'이 기저에서 (1d)의 동사 뒤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왼쪽으로 한 단계씩 좌향이동하여 각각 (1c), (1b), 그리고 (1a)의 표면어순을 형성한다는 첫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 (1) a. 영회를 철수가 종종 만났어.
 b. 철수가 영회를 종종 만났어.
 c. 철수가 종종 영회를 만났어.
 d. 철수가 종종 만났어 영회를.

앞으로의 논의에서 국어의 다양한 어순변이는 기저의 핵어선 구조에서 관련된 구성소들이 이동한 후에 선형화(linearization)가 이루어져 발생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최근의 최소주의와 부합하여 중요하게 핵매개변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 2 장에서는 어순변이에 대한 기존 제안들을 검토해 본다. 제 3 장에서는 핵어선 구조에 입각하여 어순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 4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핵어말 구조에 입각한 제 분석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어 제 5 장에서는 핵어선 구조에 입각하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기존 제안들 간략 검토

2.1. Fukui(1993)

Fukui(1993)는 언어 간 어순이 핵매개변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예, 영어는

2) 엄격히 말하여 지정어-보어-핵 순서가 반드시 SOV, 지정어-핵-보어 순서가 반드시 SVO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SVO, 일본어는 SOV), 이 핵매개변인이 수의적 이동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았다. 달리 말하여, 일본어에서 핵어말 어순을 유지시켜주는 뒤섞기(scrambling)나 수동이동과 같은 수의적 좌향이동은 가능하지만 이를 여기는 우향이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영어에서 핵어선 어순을 유지시켜주는 우향외치(extraposition)와 같은 수의적 우향이동은 가능하지만 이를 여기는 좌향이동이 허용되려면 자질점검 등의 이유가 있어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매개변인이 여전히 보편문법의 속성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험적으로도 (일본어나) 한국어에서, (1c)와 비교하여, 아래의 (1d)와 같은 소위 우전위구문에서 보듯이, 그의 체제에서 우향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편협하다는 것이 드러난다.³⁾

- (1) c. 철수가 종종 영화를 만났어.
d. 철수가 종종 만났어 영화를.

Fukui and Takano(1998)에서처럼 논리적으로 기저어순이 범어적으로 SOV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어의 SVO 순서는 SOV에서 좌향 V-이동이 일어나 유도된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에서도, 국어에 적용했을 때, 기저어순인 SOV가 그대로 표면어순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래의 후속 논의에도 이용될 자료인 술어분열구문에서 동사 ‘만나기’의 좌향이동이나 (예, (2b)) 목적어 ‘영화를’의 우향이동이 (예, (1d), (2c)) 허용되지 않는 편협함이 드러난다.

- (2) a.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3) 한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우향전위구문에 포함시키며 이들을 도출시킬 수 있는 보다 더 실질적인 분석을 요구하였다.

(i) a. 철수가 종종 개를 만났어, 영화를. (‘개’는 ‘영화’를 지시)

b. 철수가 종종 영화를 만났어, 작년에 헤어진 여자 친구를.

위의 구문들이 (1d)와는 달리 표면적으로 목적어의 전위(dislocation)를 보이지는 않아 순수한 우전위구문일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앞으로 제 5 절에서 소개될 본고의 이동분석에 대한 반례는 아니라는 것을 언급한다. 간단히 말하면, 아래의 예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 목적어 요소들이 기저에서 한데 있다가 그 중 한 요소의 이동에 의하여 서로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ii) a. 철수가 종종 만났어 [영화를, 작년에 헤어진 여자 친구를].

b. 철수가 [영화를, 작년에 헤어진 여자 친구를] 종종 만났어.

따라서 (ii)의 예들은 또한 관련된 (i)의 예들을 다중절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 (위의 4.3.의 논의 참고) 약화시킨다. 위 (ia)도 대명사 ‘개’와 ‘영화’가 한데 있다가 서로 분리된 우전위구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심사자와는 달리, 아래 제 5 절에서 논의할 (39)와 같이 비문으로 여겨진다.

(iii) *철수가 종종 그녀를 만났어, 영화를. (= (39)) (‘그녀’는 ‘영화’를 지시)

답화상에서 대명사가 그 지시대상인 이름명사보다 먼저 도입될 수는 없을 것이다.

- b. 철수가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 c. 철수가 만나기는 만났어 영화를.

2.2. Marc Richards(2008)

Richards(2008: 149-150)는 보편문법을 일괄적으로 극소화하기 위해 핵어선이나 핵어 말과 같은 선형화에 대한 정보가 협의 통사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Berwick & Chomsky 2008, Boeckx 2008 참고), 선형화는 결국 PF 접합부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기제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Richards가 핵매개변인 효과를 얻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병합(Merge)을 대칭적인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통사부에서 핵어선과 핵어말의 순서쌍들이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고 PF에 이르는 접합부에서 둘 중 하나를 일괄적으로 지워내는 것이다.

그러나 Richards의 선형화 방법은 한국어와 같은 전통적인 핵어말 언어에서 결국 PF에서 지워지게 될 핵어선 순서가 통사부에서 LF까지 의미적으로 동일한 핵어말 순서와 공존하는 잉여성을 대량으로 내포하고 있어서, 최소주의 정신에 잘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더욱, 경험적으로 위의 (1b, 2c)의 예들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모든 문장들이 다 Richards가 예측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핵어말은 아니다. 위 (1, 2)의 예들에서는 핵어선과 핵어말의 어순이 PF에서 여전히 공존하는 것을 보여준다.

2.3. Saito(2013)

한국어에서 여전히 SOV를 기저어순으로 보는 진영의 난관은 Kayne(1994)이 비대칭적인 성분통어(c-command) 관계에 입각하여 제안한 선형화대응공리(Linear Correspondence Axiom, 이하 LCA)와 같은 선형화원리를 여하히 적용시키냐 하는 것이다.

(3) 선형화대응공리(LCA)

구조표지에서 X가 Y를 비대칭적으로 성분통어하면 PF에서 X는 Y에 선행한다.

동사가 굴절을 위해 V-T-to-C 이동을 한다면 (주어와) 목적어가 위계적으로 동사복합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이 복합체에 의해 성분통어 되므로 VSO로 선형화 되어 일반적인 SOV 어순을 얻을 수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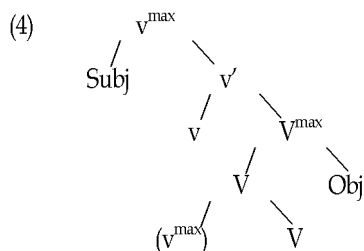
이 문제에 대해 최근 Saito(2013)가 일본어를 가지고 SVO 가설 하에서도 LCA를 적용하여 SOV 어순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Saito가 이제껏 일본어에 대해 SVO 가설의 적용을 꺼려온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그의 전망은 주목되는 일이다. 그의 방안은 핵이동에 있어서 Shimada-Tonoike 류의 외포함(excorporation)을 중요하게

이용하는데, 이 분석이 한국어에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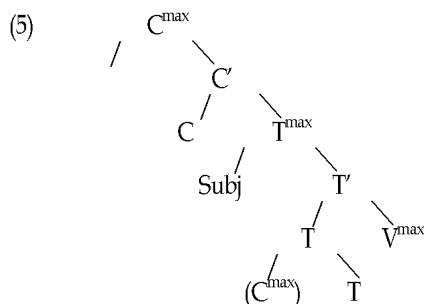
Saito(2013)의 방안에 따라 다음 한 단문의 도출을 예시한다.

(1) a. 철수가 영화를 만났어. (SOV)

그에 따르면 먼저 도출은 국면(phase) 핵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아래 (4) 참고). 이제 목적어 '영회를'은 국면 핵인 V-v 복합체 '만나-'와 병합하고 (아울러 격점검 병행) v가 외포합하여 vP를 형성한 후 주어 '철수가'와 병합한다. 여기서 그의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V가 v로 핵이동하는 것이 내현적(covert)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목적어와 동사간의 비대칭적 성분동어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핵어말인 Obj > V의 선형순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V-to-v 핵이동이 외현적(overt)이라면 핵어선인 V > Obj의 선형순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Saito(2013: 220)는 핵매개변인이 외포합이 외현적이거나 아니면 내현적이냐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상위의 국면핵인 T-C 복합체 '-았어'가 vP와 병합하고 주어가 Spec, TP로 내부병합하면 (1a)의 표면 어순으로 선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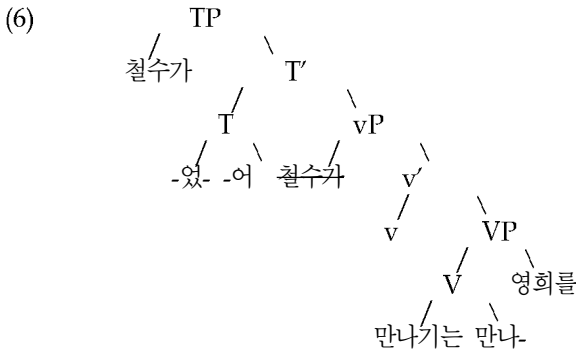
여기서도 C가 외포합하여 CP를 형성한 후 T가 C로 핵이동하는 것이 내현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인 '철수가', [T-C -았어], 그리고 [v^max 철수가 영화를 만나-] 간의 선형화는

비대칭적 성분통어 관계에 따라 ‘철수가 > [v^{max} 철수가 영회를 만나.] > [T-C -았어]의 순서로 이루어져 결국 (1a)의 문장이 유도될 것이다.⁴⁾

이제 아래의 논의에서 Saito의 방안이 한국어의 술어분열구문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역시 SVO 가설 하에서 다른 양식으로 동사굴절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아래에 반복한 (2)의 술어분열구문에서 동사 ‘만나.’가 분열되어 형태적으로 다른 접사들을 취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동사이동이 외현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드러난다.

- (2) a. 철수가 영회를 만나기는 만났어.
- b. 철수가 만나기는 영회를 만났어.
- c. 철수가 만나기는 만났어 영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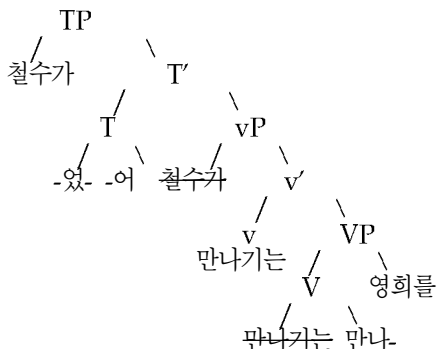
(2a)의 어순은 하위 V-v 국면단계에서 동사복합체 ‘만나기는 만나.’가 제자리에서 목적어 ‘영회’보다 하위에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b)의 어순은 동사복합체 ‘만나기는’이 목적어 ‘영회를’을 성분통어하여 어순상으로 선행하기 위해서는 상위의 v 핵으로 외현적 이동을 하고, ‘영회’는 본래의 목적어 자리에서 다른 동사 ‘남아.’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선형화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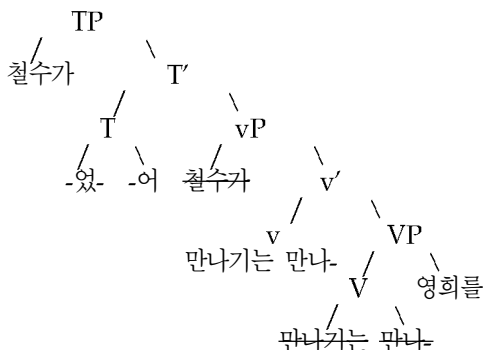
4)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Saito가 핵매개변인이외포함이 외현적이거나 아니면 내현적이거나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할 때, 영어에서는 V-to-v 이동이 외현적으로 일어나 V+v를 형성한다는 것인 반면 (p. 220), [T+C]는 외현적으로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C가 외현적으로 이동하여 CP를 투사한다하여도, T가 V+v에 접사도약(Affix Hopping)이 되는 예외적 운용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 V-to-v 외포함이 영어에서는 외현적이고 일본어(와 한국어)에서는 내현적이라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v의 형태론적 자질이 강한 반면 일본어(와 한국어)에서는 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영어와 일본어(와 한국어)의 T의 형태론적 자질은 약해야 할 것이다.

(7)



(2c)와 같은 우전위구문에서는 분리된 동사복합체가 목적어 '영화'보다 선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상위로 외현적 핵이동을 해야 할 것이다.

(8)



그런데 중간에 개재된 목적어 '영화를' 때문에 '만나기는 만나-'와 '-았어'가 선행화 후 인접할 수 없어 그릇된 표면어순이 유도된다 (즉, *만나기는 만나-영화를-았어).

이상에서 Saito식 SVO 기저어순가설은 (1a)나 (2a, 2b)와 같은 (단순한) 문장을 유도해 낼 수는 있으나 (2c)와 같은 우전위구문은 그의 분석에 치명적인 반례가 된다는 것을 보았다. 더욱 동사의 이동이 반드시 내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 외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보았다.

3. SVO 가설: 핵어선 구조에 입각한 어순변이

Richards(2008)의 선행화 방법은 병합이 대칭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참고,

Epstein et al. 1998: 152), 이와는 달리 병합이 비대칭적이라면 선형화에 필요한 위계적 구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ornstein 2009: 30-34 관련 논의 참고).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위의 Richards와는 달리 핵매개변인 없이 병합(Merge)과 이동(Move)에 의해 (범어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지정어-핵-보어의 비대칭적 성분통어 관계를 포함하는 위계적 기저구조가 구축되고 이 구조가 PF에서 Kayne(1994)의 LCA가 적용되어 선형화 된다고 본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한국어의 기저어순이 핵어선 또는 SVO라고 간주하며, 그 어순변이와 관련한 선형화에 대하여는 병합과 이동에 의해 유도된 구조가 PF에서 선형화 될 때 LCA가 적용된다고 제안한다 (Chomsky 1994도 참고). 그래서 구구조표지와 PF와의 대응관계가 원리적으로 잘 포착되며, 또 핵매개변인이 자연스럽게 제거되어 보편문법의 극소화를 노리는 최근의 최소주의 노선과도 잘 부합한다. 그리고 아래 논의에서는 (1, 2)의 예들이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SVO 가설 하에서 필요에 따른 목적어와 동사의 좌향이동에 의하여 잘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선보일 것이다.⁵⁾

여기서는 SVO 가설 하의 핵어선 구조를 가정하여 여러 언어의 다양한 어순변이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보이며, 다른 종류의 어순변이도 동일한 기저구조로부터 이동을 통하여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Irish의 전형적인 VSO 순서는 기저의 S[VO]에서 동사를 문두로 이동시켜 얻을 수 있다. (10)의 예는 이를 실제로 보여준다 (Roberts 2000).

(9) SVO => V S V O => VSO

(10) a. Cana i yfory (Welsh)

Will-sing I tomorrow

b. Bydda í'n canu yfory

will-be I singing tomorrow

Vata의 SAuxOV 순서는 기저의 SAux[VO]에서 아래의 과정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 (Koopman 1983).

(11) SAuxVO => S Aux [V O] V => SAuxOV

Romance 어에서는 아래 (12b)에서처럼 Noun이 Adj에 선행한다. 영어 (12a)에서 보듯이

5) 한 심사자가 우려한 바와 같이, 국어의 기저어순을 핵어선인 SVO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 전형적인 어순 역시 SVO로 보는 것이 아님을 언급한다. 달리 말하면, 국어 기저어순인 SVO에서 목적어의 좌향이동을 통하여 전형적인 SOV 어순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에서도 이동은 초점과 관련된 것으로 가정한다.

Adj > Noun 순서가 기본이라면, (13)에서처럼 Noun-이동으로 다를 수 있다 (Longobardi 1994).

- (12) a. The Italian invasion of Somalia (English)
 b. L'invasione italiana della Somalia (Italian)
 (13) [L' [invasione+X [italiana invasione della Somalia]]]

영어의 'the portrait'에서처럼 Det > Noun 순서가 기본이라면 아래의 Romanian에서의 Noun > Det 순서는 Noun-이동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4) [protrel-ul protrel] => protrel-ul 'portrait-the'

이와 관련하여 국어의 해당 어순은 '그 사진'으로서 흥미롭게도 핵어선인 Det > Noun 순서가 관찰된다. Hungarian은 다음의 두 경우를 허용하며 상승한 보어는 (참고 (15b)) 일치를 보인다. (아래에서는 지면상 해당 언어의 실제 예 대신 요점만 소개한다.)

- (15) a. [PP P NP]
 b. [PP NP P] <= [PP NP [P' P NP]]

중국어에서 VO와 OV의 어순을 볼 수 있다. 후자는 전자에서 목적어의 좌향이동을 통하여 얻을 것이다 (참고 ba 구문).

- (16) SVO => S O V O => SOV

Basque에서도 V CP와 CP V의 어순을 볼 수 있다. 후자는 전자에서 목적어 CP의 좌향이동을 통하여 얻을 것이다.

- (17) V CP => CP V CP => CP > V

국어에 대해서도 핵어선 구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먼저 '그 사진'을 통하여 핵어선인 Det > Noun 순서를 관찰하였다. 국어의 후치사로 보이는 요소는 기저의 전치사의 보어가 그 앞으로 이동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이동은 전치사의 접사적 성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다.

(18) [PP -에서 학교] => [PP 학교-에서 학교] => 학교에서

흥미롭게도 국어 (1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립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위하여’이다. 이 경우 이 전치사는 핵어선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19b)에서처럼 보어가 그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보어는 초점이동을 한 것으로 본다.

- (19) a.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b.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국어의 전형적인 SOV 어순은 기저의 SVO 어순에서 목적어의 좌향이동으로 유도해 낼 수 있다.

- (20) a. 철수가 만났어 영화를 =>
 b. 철수가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
 c. 철수가 영화를 만났어

물론 목적어가 동사 뒤의 제자리에 남아있는 경우도 관찰된다.

(21) 떠나실 때 보여 드렸구나 이 반지. (황금의 제국 12회)

목적절이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22a)는 기저어순을 반영한 것이며, (22b)는 목적절이 동사 앞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6)

- (22) a. 내가 말씀드렸어 [서윤이는 안 온다고]. (황금의 제국 12회)
 b. 내가 [서윤이는 안 온다고] 말씀드렸어.

6) 드라마 <황금의 제국>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한 예도 관찰되었다.

(i) 내가 그런 말했어 [민재가 복수할 거라고].

위에서 ‘그런’은 내포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음의 분석을 제시해 본다.

(ii) 내가 그런-말했어 [크 [민재가 복수할 거라고]]. (참고: 영어의 ... V it that ...)

4. SOV 가설에 대한 반론

4.1. 우향이동 분석

SOV 가설 하에서 (1d)는 (1c)로부터 목적어의 우향이동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다.

- (1) c. 철수가 종종 영희를 만났어.
 d. 철수가 종종 만났어 영희를.

그러나 우향이동 방안은 대표적으로 결속현상을 그릇 예측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먼저 아래의 대조는 한국어에서 이동한 요소가 이전의 결속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결속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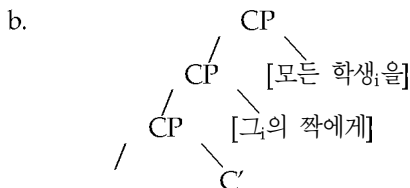
- (23) a. 선생님이 [모든 학생에게]_i [그의_i 짝을] 소개했다.
 b. *선생님이 [그의_i 짝에게] [모든 학생을]_i 소개했다.
 (24) a. *[그의_i 짝을] 선생님이 [모든 학생에게]_i 소개했다.
 b. [모든 학생을]_i 선생님이 [그의_i 짝에게] 소개했다.

이제 (23)의 예에 우향이동이 적용된 예를 살펴본다.

- (25) a. 선생님이 소개했다 [모든 학생에게]_i [그의_i 짝을].
 b. *선생님이 소개했다 [그의_i 짝에게] [모든 학생을]_i.

SOV 가설하의 핵어말 구조에서 위의 어순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먼저 여격목적어가 우향이동하여 CP에 부가된 후에 대격목적어가 다시 동일한 CP에 부가되어야 한다.

- (26) a.
-



위 (26a)에서 보듯이 (25a)에서 결속자가 피결속자보다 구조적으로 더 낮은 위치에 자리한다. 그래서 후자는 전자에 결속될 수 없어 정반대의 그릇된 예측을 낳는다. 이는 (24a)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결속자가 피결속자보다 구조적으로 더 낮다. 정반대의 상황이 (25b)에서 관찰된다. (26b)에서 보듯이, 결속자가 피결속자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기 위치하여 결속할 수 있지만 실제로 (25b)는 비문이다. 이는 결속자가 피결속자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기 위치하는 (24b)에 예시된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동일한 SOV 가설 하에서 (25a)의 어순이 동사 뒤의 요소들이 일종의 뒷생각(afterthought)과 같은 것에 의해 직접 생성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정훈 2011). 그러나 이 방안도 위에서 살펴본 우향이동이 겪는 결속 관련 문제를 동일하게 겪는다.

다음으로 아래에 제시한 두 변이형을 살펴본다. 먼저 (27a)의 기본구조를 (28)에 제시한다 (Kang 1988).

- (27) a. 철수가 영희를 만나기는 만났어. (=2a)
- b.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만나기는.
- (28) 철수가 [VP [KiP [VP 영희를 만나.]-기] 만나.]-았어

위에서 두 동사복합체 ‘만나기는’과 ‘만났어’가 각각 형성된다. 이제 (27b)에서처럼 이들의 순서가 바뀌려면 아래 (29a)에서처럼 동사복합체 ‘만났어’의 좌향이동이나 (29b)에서처럼 동사복합체 ‘만나기는’의 우향이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29) a.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 만나기는 만났어.
- b. 철수가 영희를 만나기는 만났어 만나기는.

그러나 핵어말 구조에서 (29a)의 동사복합체 ‘만났어’의 좌향핵이동은 좌측에 이를 수용할 핵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으며 (29b)의 동사복합체 ‘만나기는’의 우향핵이동은 다른 동사복합체 핵인 ‘만났어’를 건너 이동하는 것이므로 핵이동제약(Head Movement Condition, HMC)을 어기게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아래의 (30b)에서처럼 하위 VP 내의 목적어 ‘영희

를이 먼저 이 VP 밖으로 좌향이동하여 나간 후, (30e)에서처럼 잉여소 [KiP 영화를 만나기
는]이 ‘만났어’의 우측으로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가는 문장 종결어미 ‘-어’가 C에 있는
요소라면 CP에 우향부가된다.

- (30) a. [VP [KiP [VP 영화를 만나.]기]는 만나-]
 b. [VP 영화를 [VP [KiP [VP 영화를 만나.]기]는 만나-]]
 c. [TP 철수가 [VP 영화를 [VP [KiP [VP 영화를 만나.]기]는
 만나-]]-았]
 d. [CP [TP 철수가 [VP 영화를 [VP [KiP [VP 영화를 만나.]기]는
 만나-]]-았]-어]
 e. [CP [CP [TP 철수가 [VP 영화를 [VP t_{KiP} 만나-]]-았]-어]
[KiP [VP 영화를 만나.]기]는]
 f. 철수가 영화를 만났어 만나기. (= (27b))

그러나 이러한 좌우향 이동들은 실로 아무 동기나 방향성도 없다.

4.2. 좌향이동 분석

SOV 가설하에서 (1b)와 같은 우전위구문은 (31)에서처럼 연속적 좌향이동에 의해서도
유도될 수 있는데, 아래의 논의에서 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 (1) a. 철수가 영화를 만났어.
 b. 철수가 만났어 영화를.
 (31) a. [영회를] [철수가 t_i 만났다]
 b. [철수가 t_i 만났다] [[영회를] t_i]

위에서 ‘영회를’이 먼저 문두로 좌향이동하고 다시 잉여소 [철수가 t 만났다]가 그 앞으로 좌
향이동하였다.⁷⁾

이 방안은 우선 결속에 있어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아래에 예를 든다.

7) 여기서 이동한 기능범주 위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차치한다. (31a)에서 ‘영회를’이
TP에 부가되든지 아니면 (TP 위의) Spec, FocP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며, [철수가 t 만났다]는 다시 TP
에 부가 되거나 FocP의 외곽 지정어 자리 또는 그 위의 다른 기능범주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 (32) a. *[서로의_i 선생님_i] 비난했다 [철수와 영희를]_i.
 b. [철수와 영희를]_i 비난했다 [서로의_i 선생님_i].

위의 대조는 결속조건 A의 만족 여부에 기인한다. 즉 (32a)에서 주어 내부의 대응사가 우전위된 선행사 ‘철수와 영희를’에 의해 결속되지 못하지만, (32b)에서는 문두로 이동한 선행사가 우전위된 주어 내부의 대응사를 새로이 결속하게 되는 형국이다.

위 (31)에 소개한 방안으로 (32a)는 사실과 달리 문법적으로 예측되는 것 같다. 아래 (33a)에 제시한 도출에서 보듯이, 우전위 요소가 먼저 문두로 좌향이동 하면 대응사가 전치된 이 우전위 요소에 의하여 성분통어 될 수 있으므로 결속이 가능하다. 이후 (33b)의 단계에서도 이 결속은 유효할 것이므로 결국 그릇된 예측을 하게 된다. (34a,b)에서 선행사는 어느 단계에서도 대응사를 성분통어할 수 없어 결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32b)에 대해서 그릇된 예측을 낳는다.

- (33) a. [[철수와 영희를]_i [[서로의_i 선생님_i] e 비난했다]
 b. [[서로의_i 선생님_i] e 비난했다]_i [[철수와 영희를]_i t_i]
 (34) a. [[서로의_i 선생님_i] [e [철수와 영희를]_i 비난했다]
 b. [e [철수와 영희를]_i 비난했다]_i [[서로의_i 선생님_i t_i]

4.3. 다중절 분석

Chung (2009, 2010)은 Tanaka를 따라 SOV 가설하에서 (35)와 같은 우전위구문을 두절이 등위접속에 의해 병렬된 이중절로 분석하였다.

- (35) 철수가 만나기는 만났다 영희를.

이 분석에서는 문제의 우전위요소 ‘영희를’이 후속절에서 앞으로 뒤섞기를 통하여 이동한 후 이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생략되어 유도된다고 본다 (&는 등위접속소이다).

- (36) [철수가 e_i 만나기는 만났다] & [영희를 [철수가 t_i 만나기는 만났다]].

여기서 선행절의 목적어가 공요소로 나타나는데 영희를을 직접 역행적으로 삭제하거나 pro를 설정하여 일종의 역대명사화를 적용하여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중절분석은 다음과 같은 원천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Lee 2009,

2011b). 즉 선행절의 목적어나 주어는 실제로 적어도 논의 하고 있는 등위접속구문에서 역행 삭제를 거부한다.

- (37) a.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그리고) 영수도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b.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그리고) 영수도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c.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그리고) 철수가 순희도 만나기는 만났어.
 d.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그리고) 철수가 순희도 만나기는 만났어.

그리고 역대명사화도 일어날 수 없다.

- (38) a. *철수가 그녀를 만나기는 만났어. (그리고) 영수도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b.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그리고) 영수도 그녀를 만나기는 만났어.
 c. *그가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그리고) 철수가 순희도 만나기는 만났어.
 d.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그리고) 그가 순희도 만나기는 만났어.

따라서 (36)의 선행절 공요소는 pro가 될 수 없다. 요컨대, 이중절분석에서 이 공요소는 삭제에 의한 것도 아니고 pro도 아니어서 그 정체가 아주 불분명하다.

선행절의 공요소가 pro라 하더라도 외현적 대명사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그 결과는 좋지 않다.

- (39) *[철수가 그녀를 만나기는 만났어] & [영회를]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대명사가 고유명사를 결속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즉, 결속조건 C의 위반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두 요소가 동일절 내에 있다는 것이며 대명사가 구조적으로 상위에 있어서 고유명사를 성분통어 한다는 것이다.

5. 문제 해결: SVO 가설

논의를 위해 SVO 가설 하에서 한국어에 대한 핵 골격구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⁸⁾

(40) C-Top-Foc-V-Mood-Asp-V

그리고 논의를 위해 다음 예를 고려한다.

- (41) a.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만났어. (=2a)
 b. 철수가 영화를 만났어 만나기는.

SVO 가설 하에서 (41a)는 동사 '만나-'와 목적어 '영화'가 서로 병합되어 동사구 [만나- 영화]가 도출되고, 다시 동사 '만나-'가 좌상향 이동한 후 형태론적으로 달리 반복되어 결국 '만나기는 만났어'가 유도된 다음, 동사 '만나-'의 우측에 있던 목적어 '영화'가 최종적으로 상위의 Spec, FocP로 이동하여 (적당한 단계에서 주어 '철수'의 병합이 가해져서) 유도되며, 이때 '만나기는'은 Focus 핵에 모이는 것으로 본다. 이 과정을 대략 선형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정식 2012).

- (42) a. 만나- 영화
 b. 만났어 영화를
 c.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d.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e. 영화를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f. 철수가 영화를 만나기는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다음 (41b)는 아래에서처럼 [영화를 만났어]가 상위의 Spec, FocP로 이동하는 것으로 본다 (이정식 2012).

- (43) a. 만나- 영화
 b. 만났어 영화를
 c. 영화를 만났어 영화를

8) 이 구조 하에서 동사의 굴절을 포함한 자세한 도출의 예시나 동사구 내적 상(Aspect)/서법(Mood) 구에 대한 동기 설명은 여기서 지면상 생략하고 이하의 논의에서는 필요한 도출만 요점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Lee (2009, 2011a,b)를 위시하여 여기에 소개된 일련의 관련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 d. 만나기는 [영회를 만났어 영화를]
- e. [영회를 만났어] 만나기는 [영회를 만났어]
- f. 철수가 [영회를 만났어] 만나기는 [영회를 만났어]

이상에서 (41a)의 유도를 위해서 ‘영회를’이 (42e)에서 보듯이 단독으로 Fo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고, (41b)의 유도를 위해서는 (43e)에서 보듯이 [영회를 만났어]가 FocP의 지정어 자리로 동반이동(pied-piping)하였다. 그래서 하나의 Foc 핵의 [+EPP] 자질이 다른 방법으로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현 SVO 가설 하에서는 (25a,b)에 대한 설명에 아무 문제가 없다.

- (25) a. 선생님이 소개했다 [모든 학생에게]_i; [그의_i 짝을].
- b. *선생님이 소개했다 [그의_i 짝에게] [모든 학생을].

(25a,b)가 기저인 구조에서 여격목적어가 대격목적어 위에 생성되므로 전자가 후자를 결속하고 역으로 후자는 전자를 결속할 수 없어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5a)가 SOV 가설 하에서 단문으로 간주될 때 굴절동사가 문중으로 핵이동하여 유도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핵어말 구조 하에서는 좌향이동하는 이 동사를 수용할 핵이 좌측에는 없기 때문이다. SVO 가설 하에서는 (25a)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39)의 표면어순이 나쁜 것도 현 SVO 가설 하에서 간단하게 다룰 수 있다.

- (39) *철수가 그녀를_i 만나기는 만났어 영화를_j

즉, 구조적으로 상위에 있는 대명사가 하위의 고유명사를 성분통어 하므로 결속조건 C를 위반한다. 다른 분석에 문제로 남아 있는 아래의 대조도 잘 다룰 수 있다.

- (32) a. *[서로의_i 선생님이] 비난했다 [철수와 영화를]_j.
- b. [철수와 영화를]_i 비난했다 [서로의_i 선생님이].

(32a)에서는 주어에 들어있는 대용사가 하위의 선행사 목적어에 의해 결속을 받지 못하며 (즉, 결속조건 A 위반), (32b)에서는 문두로 이동한 선행사 목적어가 하위의 대용사를 성분통어하여 성공적으로 결속할 수 있다.

6. 요약

최근 보편문법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내용물이 극소화 됨에 따라 그 내부의 원리가 축출되어 다른 일반 원리로 재편성되면서 매개변인적 변이는 새로운 설명을 요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어순에 초점을 맞추어 범어적으로 지정어-핵-보어의 순서, 달리, SVO 순서가 기저어 순이라고 주장하였다 (Lee 2007, 2008 참고). 따라서 전통적으로 핵어말 언어인 한국어의 기저구조가 SOV 순서라고 간주해온 기존의 분석을 재고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본 논의는 철저하게 현대 언어학이 이제까지 확립한 기술적(technical), 이론적인 방법에 입각하여 현 SVO 가설이 기존의 SOV 가설보다 어순변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언어학적으로 확립된 원리나 제약에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을 보였다. 논의의 결과는 범어적인 기저어순이 지정어-핵-보어, 달리 SVO라는 Kayne(1994)의 주장을 지지했고, 이로써 핵매개변인을 제거하는데 일조하여 보편문법의 최소화라는 최근 최소주의 노선에 잘 부합하였다.

참고문헌

- 이정식. (2012). 자유어순변이, 선형화 및 강력최소주의. *언어학*, 20(2), 81-104.
- 이정훈. (2011). 후보층 구문의 구조와 Ω 그리고 빈칸. *현대문법연구*, 64, 95-116.
- Berwick, R., & Chomsky, N. (2008). The biolinguistic program: The current state of its evolution and development. Ms., MIT.
- Boeckx, C. (2008). Approaching parameters from below. Ms., Harvard University.
- Borer, H. (1984). *Parametric syntax: Case studies in Semitic and Romance languages*.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No. 5. MIT, Cambridge, MA.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pp.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5). Three factors in language design. *Linguistic Inquiry*, 36, 1-22.
- Chomsky, N. (2006). Approaching UG from below. Ms., MIT.
- Chung, D. (2009). An elliptical coordination analysis of the right dislocated construction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4), 1-23.
- Chung, D. (2010). Replies to Lee (2009): In defence of a double clause approach to the right dislocated construction. *Studies in Modern Grammar*, 61, 167-196.

- Epstein, S., Groat, D., Kawashima, R., & Kitahara, H. (1998). *A derivational approach to syntactic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J. (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Josep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73-113. Cambridge, MA: MIT Press.
- Hornstein, N. (2009). *A theory of syntax: Minimal operations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kui, N. 1993. Parameters and optionality. *Linguistic Inquiry*, 24, 399-420.
- Fukui, N., & Takano, Y. (1998). Symmetry in syntax: Merge and Demerg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7, 27-86.
- Kang, M.-Y.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Koopman, H. (1983). *The syntax of verbs*.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Lee, J.-S. (2007). Deriving SOV from SVO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3), 1-20.
- Lee, J.-S. (2008). Notes on right dislocated construction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2), 47-68.
- Lee, J.-S. (2009). A verb-initial single clause analysis to right-dislocated constructions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57, 127-157.
- Lee, J.-S. (2011a). Layered VP and inner aspect. *Studies in Modern Grammar*, 65, 45-72.
- Lee, J.-S. (2011b). Some loopholes of the double clause approach to the right dislocation construction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63, 113-146.
- Longobardi, G. (1994). Reference and proper names: a theory of N-movement in syntax and Logical Form. *Linguistic Inquiry*, 25, 609-665.
- Richards, M. (2008). Two kinds of variation in a minimalist system. In F. Heck, G. Müller & J. Trommer (Eds.), *Varieties of competition. Linguistische Arbeitsberichte*, 87 (pp.133-162). Universität Leipzig.
- Roberts, I. (2000). The fine structure of the C-system in some Celtic languages. Ms., Cambridge University.
- Saito, M. (2013). Case checking/valuation in Japanese: Move, Agree or Merge. *Nanzan University Research Report in 2008-2012*, 203-221.

이정식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 063-850-6873

이메일: jslee@wku.ac.kr

Received on April 14,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08, 2016

Accepted on June 30, 2016